4월 보선 4곳으로…새정치 경선 여론조사 돌입

〈인천 서구·강화 을 추가〉

광주 서을·서울 관악 을 등 3곳 후보 14일 결정

25일 광주서 최고위회의 '천정배 바람' 차단 나서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이 12일 회계책임자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형 판결로 당선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4·29 보궐선거 대상 지역이 3곳에서 4곳으로 늘어났다.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과 함께 전 통합진보당 의원 3명이 의원직을 잃은 광주 서구 을과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에서의 보궐선거에 이어 안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인천 서구·강화 을에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보선은 내년 4·13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수도권과 호남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국정동력 회복의 발판 마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 체제의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부여된 상황이어서 총력전이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서울 관악 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 을 등 3곳의 후보자를 뽑기 위한 국민 여론조사를 시작했다. 국민 여론조사는 경선에서 50% 비율이 반영되며 13일까지 진행된다.

새정치연합 지지자와 무당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유선 RDD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치러진다. 14일에는 나머지 50%가 반영되는 권리당원 현장 투표가 진행된다.

광주 서구 을 후보 경선에는 참여정부 국무조정실장 출신의 조영택 전 의원과 검찰 출신의 김하중 전남대 로스쿨 교수, 김성현 전 광주광역시당 사무처장 등 3명이 참여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25일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무소속 출마에 나선 천정배 전 의원의 바람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1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천정배 전 의원과의 야권혁신에 대한 비전이 분명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연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어 "천 전 의원의 새정치연합 탈당과 출마가 과연 야권의 혁신과 판을 바꾸는 변화를 가져오는 대승적 정치 행보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피력, 천정배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非)새정치연합 후보 단일화에 진통을 예고했다.

서울 관악 을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정태호 관악 을 지역위원장과 관악구청장 출신이자 18대 국회의원이었던 김희철 전 의원이 경쟁한다. 특히 문재인 대표의 측근인 정태호 후보와 권노갑 고문, 박지원 의원 등과 가까운 김희철 후보가 각각 친노와 동교동계 주자로 나서 2·8 전당대회의 '리턴매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남 중원구는 현역 비례 국회의원인 은수미 의원과 참여정부 출신 인사인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홍훈희 전 청주지법 판사, 정환석 성남 중원 지역위원장 등 4명이 경선을 치른다.

인천 서구·강화 을 후보로 새누리당에서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이경재 전 의원, 유천호 전 강화군수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새정치연합에서는 신동근 서구·강화 을 지역위원장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활짝 웃는 野 원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웃으며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조용구 선관위원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후보 검증보다 선거구 획정 문제 쟁점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검증보다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제도 개편과 선거구 획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본인 소유 땅의 불법 전용 문제, 형과의 채무 관계, 18대 대선 때 후보자와 가족들의 투표 불참,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지적이 나왔으나 대체로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구 인구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면적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인구 편차를 2대1로 하면 농어촌 지역 의원은 줄고 수도권 의원은 늘게 된다"며 "헌재 결정은 났지만 고향에 관심이 있으면 서울에 살아도 고향 본적지에 투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모든 정부정책이 대기업, 대도시에 맞춰진 것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지방과 농어촌을 배려하는 선거제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새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서 지역대표성 문제도 충분히 중시돼 정치현실에 맞는 선거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재 결정이 기본적으로 존중돼야 하지만 선거구 개편에 대해 지적된 부분은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입법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 직후 안전행정위원회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U대회 남북단일팀 정부가 나서야"

박주선 국제경기특위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통일부 관계자의 광주 하계U대회의 남북 단일팀 구성이 적절치 않다는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박 의원은 12일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국제경기특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중 남북한 간의 의미 있는 스포츠·문화·예술분야의 교류와 민간 차원의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길 기대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3·1절 기념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경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광주하계U대회와 같은 국제경기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상 정부의 의무다"며 "오는 7월 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국제경기특위 전체회의에서 '광주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촉구 결의안'을 제기했다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추가검토 입장으로 채택되지 못하자 여·야 간사 합의 후 3월 말 처리를 제안한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대통령·문재인 대표 대선후 첫 청와대 회동

17일 김무성 대표와 3자 만나…경제 현안 파트너십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7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청와대에서 회동한다.

새정치연합 김현미 대표비서실장은 12일 국회 브리핑에서 "다음주 화요일인 17일 오후 3시에 박 대통령과 김무성·문재인 대표의 3자 회동이 열린다"며 "회담 의제는 박 대통령의 이번 중동 순방 결과와 문 대표가 말한 민생경제 현안을 다루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날 오후 청와대 조윤선 정무수석이 13일이나 17일 회동을 제안했고 새정치연합은 13일은 촉박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새누리당과 조율을 거쳐 회동날짜가 17일로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과 두 대표가 정식으로 회동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을 벌였던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자리를 함께 하기는 올 3·1절 기념식에서 잠시 만난 것을 제외하면 2012년 12월16일 격렬한 설전을 펼친 대선 TV토론 이후 2년 3개월 만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회동을 두고 정치권에선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소통 행보로 국정장악력을 제고하려는 박 대통령과 제1야당의 수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해 차기 리더 이미지 구축에 나선 문 대표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대선 이후에도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파문으로 서로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이이긴 하나, 과거를 털고 국정과제, 특히 경제 현안을 놓고 파트너십 구축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김영란법' 오늘 정부 이송

15일이내 공포해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13일 정부로 이송된다.

국회 관계자는 12일 "김영란법을 내일 정부로 이송할 것"이라면서 "본회의 통과 이후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 오탈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서명,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공포(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는 공포해야 한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안복합리조트 사업부지 매각 공고

Ⅰ 개 요

① 매각대상자산(이하 "각 매각대상자산")
가)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가산리 산8 외 21필지 281,517.0m2(이하 "노대도")
나)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수치리 844-2 외 54필지 364,977.8m2(이하 "상수치도")
다)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한운리 산269 외 102필지 814,160.0m2(이하 "상사치도")
라)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425-7 외 396필지 1,540,667.5m2(이하 "기타지역")
② 자산매각방법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각 매각대상자산 별 매각("기타지역"은 세부 분할매각 단위 별 매각)
③ 기타주요사항
- 매각대상자산 중 (라)기타지역은 12개의 세부 분할매각단위 별로 매각할 예정이며, 각 매각대상자산 별 세부 필지 내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참조 가능하며, 서남개발㈜에 상시 비치할 예정임
- 단독입찰인 경우에도 최저매각금액 이상으로 인수희망금액을 기재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할 예정이며, 최저매각금액 이상으로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예정임
- 낙찰자는 각 매각대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단, 신탁되어 있는 각 매각대상자산은 매매계약 후 잔금지급일에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입찰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은 면제하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각서(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면제된 입찰보증금 납입을 확약)를 입찰시 제출 필요
- 본 매각에서는 인수의향서 제출 절차는 없음

Ⅱ 매각진행 절차

① 입찰진행
- 입찰일: 2015년 3월 31일(화) 9시 ~ 16시(이하 대한민국표준시)
- 입찰방법 : 직접방문제출 (팩스나 우편제출은 불가함)
- 입찰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한강로 2가) LS용산타워 5층 삼일회계법인 Deal 2본부 및 전라남도 목포시 원형서로 42(상동 1148-1) 초원오피스텔 702호 서남개발㈜ 중 선택 가능
- 입찰서류 : 신안 복합리조트 사업부지 매각 입찰안내서의 별첨1~별첨7
- 입찰서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람(입찰서류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및 서남개발㈜에 상시 비치함)
② 낙찰자 선정 등 상세한 내용은 재무자문사를 통해 개별 통보 예정임
③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재무자문사 및 매도인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소유권 이전

- 입찰일 기준으로 각 매각대상자산에 대한 제한권리(가처분, (가)압류, 소송, 임대차, 유치권, 체납처분, 민원사항, 제한물권, 미납 부담금/세금, 기타) 등은 매수자가 인지하고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하며, 이를 이유로 낙찰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일까지 각 매각대상자산에 제한권리 설정 등 소유권이전에 제한을 가하는 권리가 추가로 설정된 경우에는 매도인 책임으로 정리하되, 미정리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기납부된 대금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 경우 낙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매수자는 매매계약체결 이후 60일 이내(주택거래신고지역 대상물건인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매도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매매계약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신탁계약해지 비용 등의 소유권 이전 절차에 관한 일체의 비용과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함
- **입찰자명 및 자산양수도계약의 계약자명은 동일하여야 하며, 변경이 불가능함**
- 낙찰자 선정 후 매도인 측 감정평가금액 비율에 따라 낙찰금액을 안분하여 필지 별 매매금액을 산정할 예정임.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자 측에서 별도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함
- 매수자는 매각대상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이해관계자들(유치권자, 임차인 등)의 정리 및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 등은 매수자 책임으로 하며, 매도인이 수령한 기납부 임차료는 매도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각 매각대상자산 중 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건물 매매대금의 10%)는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인수자가 부담함
- 매매계약은 낙찰자 선정 통보 후 10영업일 이내에 체결할 예정임
- 매매계약 시 계약금 10%를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지급 기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임. 단, 낙찰금액에 따라 그 기일은 변동될 수 있음

Ⅳ 기 타

- 본 건 매각에서는 단독입찰인 경우에도 매각이 진행되며, 예가(최저매각금액)는 별첨 2_입찰금액 및 별첨 2-7_입찰금액_기타지역에 공개함
- 농지에 대한 낙찰자는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납입기일 까지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소유권 취득 및 처분 관련된 사항은 매수자의 책임으로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함
- 각 매각대상자산의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매도인 및 삼일회계법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 책임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 각 매각대상자산에 임대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권리, 의무관계 사항(관련 법령 포함)은 입찰자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민원사항을 포함한 상기 사항에 대해 매수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매도인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매각대상자산 상의 존재하는 건축물과 관련한 권리, 의무관계 사항은 사전에 입찰자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매수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매도인 및 재무자문사인 삼일회계법인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산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 등") 등 5개저축은행의 파산재단 및 (유)지도개발공사, 농업회사법인대광㈜, 농업회사법인상운(유), 농업회사법인에스제이엔피비너스(유), ㈜비엠랜드개발, ㈜신안월드, ㈜서남개발 등 7개법인이 각 매각대상자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 완료일 현재 설정하고 있는 근저당권, 지상권,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권리보전사항은 매매대금의 잔금지급 완료 후 말소할 예정임
- 입찰자는 매각공고,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이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
- 매각공고 내용과 각 매각대상자산의 공부 내용이 상이한 경우 공부내용이 우선함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매도인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인수자 선정을 임의로 철회할 권리 및 선정과 관련된 고유의 권한을 가짐. 모든 참가자는 그 결과에 대해 여하한 내용의 손해배상 기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서류를 제출한 잠재적인수자 가운데 본 거래와 관련하여 입찰의 공정성, 객관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예비입찰자 등의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행위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정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부산저축은행 등의 부실관련자(부산저축은행 등의 주주 및 임직원, 부실채무기업 주주 및 임직원 등) 및 부실관련자의 이해관계인(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및 부실관련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부실관련자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자 및 전득자, 그 밖에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에 관련이 있는자)은 입찰자격이 없으며, 입찰서류 제출 후 부실관련자 및 부실관련자의 이해관계인으로 밝혀질 경우 입찰서류의 제출, 낙찰자 및 자산양수도계약체결을 무효로 처리 할 예정임
- 제출된 제반 입찰서류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될 수 없음
- 입찰 당일 16시 이후 입찰서류 제출은무효로 함
-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 삼일회계법인 Tel : 02-709-8395, 02-3781-1487
E-mail : joonhjang@samil.com

2015년 3월 13일

재무자문사 삼일회계법인